봉준호 감독, 한국어로 칸영화제 개막 선언

▲ 제74회 칸 영화제 개막 선언을 하고 있는 봉준호 감독. 사진=deadline.com

2019년 '기생충' 으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이 한국어로 칸영화제 개막을 알렸다.

봉 감독은 6일 저녁 열린 개막식에 스페셜 게스트로 무대에 올랐다.

박수를 받으며 마이크를 잡은 봉 감독은 프랑스어와 영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뒤 "집에서 혼자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티에리 프레모 집행위원장이 연락을 주셔서 오게 됐다." 며 깜짝 등장하게 된 사연을 전했다.

칸영화제는 이달 초 조디 포스터, 맷 데이먼 등이 참석하는 관객과의 대화 행사를 소개하며 "세계 영화계의 주요 인물이자 칸 영화제의 절친한 친구로서 영화제 역사에 기록을 남긴 깜짝 손님이 관객과 대화를 나눌 것" 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봉 감독은 공식 개막을 선언하기에 앞서 무대 한쪽에 서 있던 올해 명예 황금종려상 수상자 배우 조디 포스터와 시상자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던 스파이크 리 감독을 무대 가운데로 불러 모으고 개막 선언을 각자 다른 언어로 나눠 하자고 제안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봉 감독이 먼저 영어로 "제74회 칸 영화제 개막을 선언한다." 고 선창한 뒤 알모도바르 감독(스페인어)과 조디 포스터(프랑스어)에 이어 다시 한국말로 "선언합니다." 라고 외쳤다.

봉 감독이 인사말을 하는 동안 심사위원으로 무대에 앉아 있던 송강호가 흐뭇하게 바라보는 모습도 여러 차례 중계 카메라에 잡혔다.

엔하이픈, 일본 데뷔 싱글로 오리콘 일간 차트 정상

보이그룹 엔하이픈이 일본에서 낸 데뷔 싱글로 오리콘 일간 차트 정상에 올랐다.

소속사 빌리프랩은 엔하이픈이 지난 6일 발매한 '보더 : 하카나이' (BORDER : 儚い)가 15만254장의 판매량을 기록해 오리콘 일간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 엔하이픈. 사진=빌리프랩

'보더 : 하카나이' 는 엔하이픈이 한국에서 데뷔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발표한 첫 일본 싱글로 '기븐-테이큰' , '렛 미 인(20 CUBE)' 등 일본어 번안 곡과 일본 오리지널 곡 '포겟 미 낫' 이 실렸다. '포겟 미 낫' 은 일본 TV 애니메이션 '리-메인' 오프닝 노래로 쓰여 인기를 끌고 있다.

엔하이픈은 엠넷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랜드' 를 통해 팀 결성 과정이 공개되고, 일본인 멤버 니키가 포함돼 있어 일본에서 정식 데뷔하기 전부터 현지 팬들의 관심이 높았다. 지난해 한국 데뷔 앨범 '보더 : 데이 원' 으로 오리콘 일간 및 주간 앨범 차트에서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

이후 올해 4월 발표한 미니 2집 '보더 : 카니발' 로는 2주 연속 주간 앨범 차트 정상에 오르고 월간 앨범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해외 아티스트로는 처음으로 일본 유명 라디오 프로그램인 '올나이트 일본' 의 새 프로그램 '올나이트 일본 X(크로스)' 고정 DJ로 발탁되기도 했다.

박서준, 일 아마존 한국 드라마 DVD 랭킹 점령

▲ 박서준. 사진=어썸이엔티

배우 박서준이 출연한 드라마가 일본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한류 스타로서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8일 소속사 어썸이엔티에 따르면 최근 일본 아마존 사이트의 한국 드라마 DVD 판매 실시간 랭킹 20위 안에 박서준이 출연한 드라마가 5편이나 올랐다.

이날 기준 드라마 '화랑' 이 1, 2위를 차지한데 이어 '마녀의 연애' , '그녀는 예뻤다' , '쌈, 마이웨이' , '김비서가 왜 그럴까' 까지 총 5편이 순위에 올랐다. 매시간 업데이트되는 판매 차트에 박서준의 주연작 5편이 꾸준히 차트 상위에 머물면서 한국 드라마를 향한 관심의 중심에 박서준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 드라마 신작 DVD 판매 랭킹(8일 기준)에서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 가 1위부터 3위까지 휩쓸었다. 이는 DVD 시장이 활성화된 일본에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한 박서준의 인기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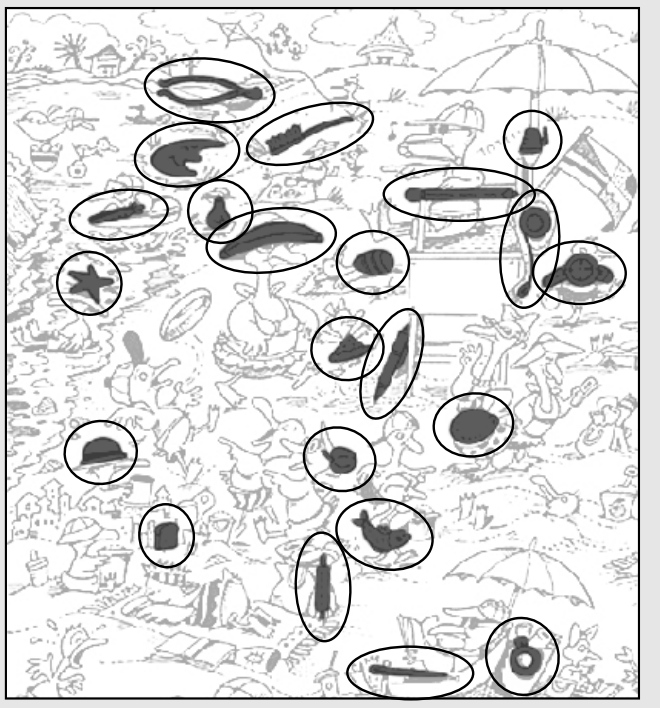
한류 스타들의 일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박서준의 드라마가 일본 내에서 연이어 히트를 치며, 1040세대를 아우르는 4차 한류 붐의 주역으로 우뚝 섰다. 현지 제작 드라마와 영화 출연 제안뿐만 아니라 일본 프로모션이 어려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화보나 광고, 온택트 팬미팅 등 현지 관계자들의 섭외 문의가 쏟아진다." 고 밝혔다.

라인댄스 초,중급 반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숨은그림찾기 정답